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4월 30일 발행(223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3 ISSUE
복지부가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안경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04 NEWS IN NEWS
전국의 안경사들이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이틀 만에 복지부에 1천여 건의 반대 의견을 올리며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08 INSIDE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의 안성호 신임 회장이 협동조합 설립 등 업계의 미래화를 이루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경사 구인구직

모바일 APP 출시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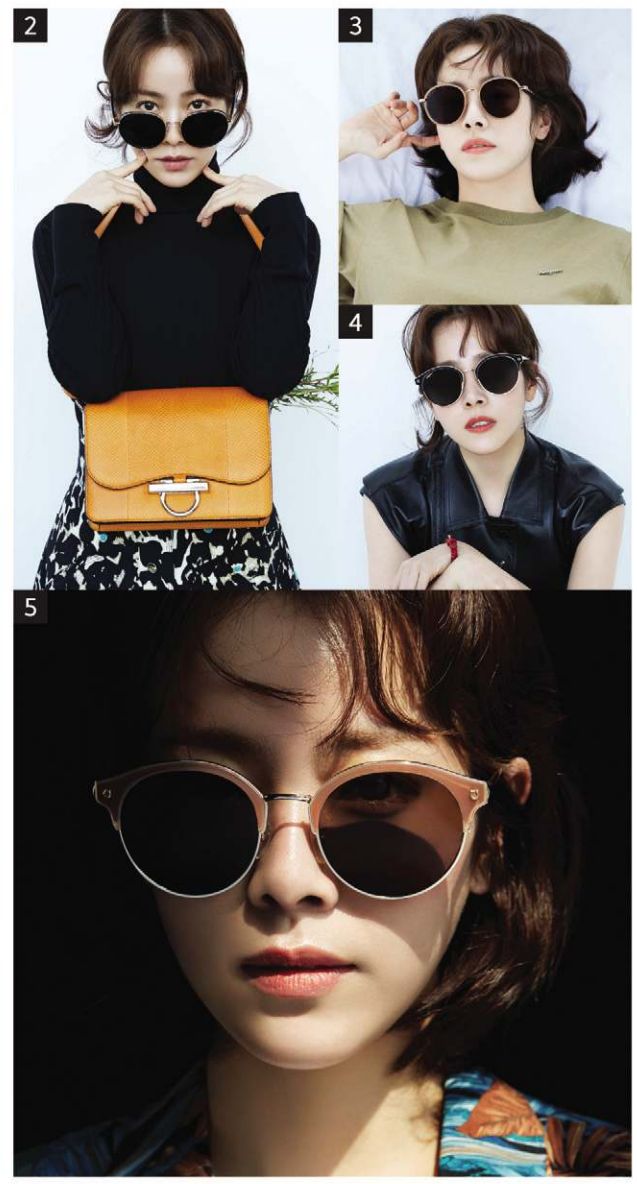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Salvatore Ferragamo
EYEWEAR

페라가모, 한지민 선글라스 화보로 화제만발!





㈜룩옵틱스가 전개하는 페라가모 아이웨어가 배우 한지민과 함께 한 2019 뉴컬렉션 화보를 공개했다. 최근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등 출연작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한지민은 공개된 화보에서 페라가모 선글라스와 함께 독보적 비주얼을 뽐내며 패션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지민이 화보 속에서 착용한 페라가모 선글라스는 2019 신모델 SF925SK를 비롯하여, 대표 스테디셀러 SF159SK, SF847SK 등으로 대중성과 패션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련된 디자인과 한국인의 얼굴형에 최적화된 코리안핏을 자랑한다. 한편, 페라가모 아이웨어는 안정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2019시즌에도 정우성, 이하늬, 한고은 등 탑연예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활기차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 **한지민** SF159SK 017 2. **한지민** SF847SK 017 3. **한지민** SF159SK 251 4. **한지민** SF925SK 017 5. **한지민** SF925SK 272 6. **정우성** SF923SK 017 7. **이하늬** SF847SK 670

전국 안경 / 콘택트 / 보청기 전문체인

(주) 안경매니져

글라스 스토리 · 렌즈 스토리

가/맹/모/집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문/의/환/영

글라스 스토리 홈플러스 의정부점/청라점 OPEN

글라스 스토리, 렌즈 스토리는 (주)안경매니져에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를 무단 사용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정부지원 창업 대출 자금 프로그램 연계 ※안경 및 콘택트 브랜드에 한함

가맹 안내 · 문의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GLASS STORY Lens Story 안경매니져 아이피아 Optical Manager 씨채널안경

총괄	서울	인천 · 강원도 · 경기도	대전 · 충청도	대구 · 부산 · 울산 · 경상도	광주 · 전라도
이재형 본부장	서영태 팀장	이준영 팀장	노장호 팀장	이동기 팀장	문기영 팀장
010-9670-6666	010-9374-1739	010-9424-5438	010-9976-5058	010-2951-5485	010-7557-8208

보청기매니져 가맹 안내 · 문의 이혜정 팀장 010-3944-9436

렌즈매니져 가맹 안내 · 문의 박진우 팀장 010-6354-9455

NAVER YouTube Instagram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9년 04월 30일 발행(223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Marvis
마비스렌즈 런칭 기념 콜라보
●전품목 일정 금액 구매시 무료설치
●아이원3D 누진측정기 630만원
아이미광학 T.02.774.4477 H.P.010-9662-6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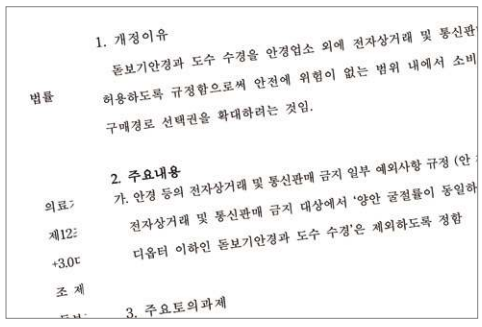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www.aoa.co.kr
미미상사 02.333.1123

돋보기 온라인 허용(안)… 힘든 안경원 대지진

복지부, 돋보기·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입법예고… 일선 안경사들, 안경사제도의 입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안에 강력 반발

근용안경(돋보기)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마침내 지난 25일 공고되었다. 근용안경이 '손톱 밑의 가시'로 불리며 2014년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에서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4년 만에 끝내 입법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모은 후 이 개정법률안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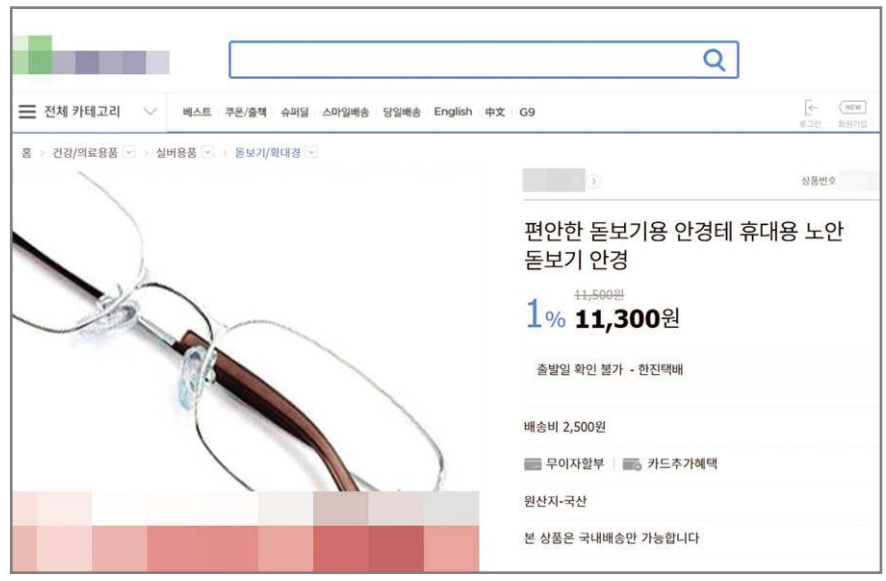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전국의 안경사들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반발하며 의견 제시 기간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상황에 따라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4면에 계속


1. 개정이유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
범률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경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일부 예외사항 규정 (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
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하도록 정함

3. 주요토의과제

▲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사본. 이를 통해 복지부는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현재 국내의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돋보기안경. 상품 설명엔 '편안한 돋보기 안경테, 휴대용 노안 돋보기안경'이라 기재돼 있다.



지난 25일 복지부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안은 양안의 도수가 동일한 +3.0디옵터 이하의 돋보기안경과 수경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사법의 일부 개정해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을 통신판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래한 이래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이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개정법률안이 최초로 발의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이유를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 경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안이 '온라인 쇼핑몰 산업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돋보기와 도수 수경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도 국민 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들며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안경사 전문성과 업권 훼손 불가피

전국의 안경사들은 이번 복지부의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큰 충격과 함께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저도수라고 적시한 '+3.0디옵터 이하'는 노안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매우 높은 도수로써 돋보기 전체를 온라인 판매하려는 '물타기 자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가 아니면 양안이 동일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도 '양안이 동일한 돋보기는 온라인 판매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인 시력을 뭉뚱그려 온라인에서 판매토록 입법화하는 자체가 개정안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구로 나열된 개정안은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공고된 후 전국의 안경사와 대안협 집행부는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종석 협회장은 입법예고 후 전체 회원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이번 개정안은 5만 안경사와 20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이라며 '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콘택트렌즈는 제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전체 안경사는 이번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안협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16개 안경사회를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올릴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저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안경사 면허증의 반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 취재반

tip. 의기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반대 클릭과 의견 작성
→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list
→ 입법예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의견 작성
→ 로그인(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등)

톡톡톡

■ "온라인에는 청광차단, UV차단 안경 등이 잔뜩 팔리는데 정작 안경원엔 찾는 고객이 없네요. 안경원, 이제 정말 변신해야 보네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안경원 원장)

■ "학생들 시력이 좋아졌나요? 신학기에도 학생이 손에 꼽을 정도니 기막힙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안경사)

안경사의 주요 반대의견 안경사들의 외침에 정부는 모르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공고된 이후 이틀 만에 복지부 전자공청회에는 총 835건의 의견이 등록되었다. 이중 기타 의견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은 모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안경사들의 반대 의견이다.

- 복지부가 내세우는 국민편의와 고용창출 등은 전혀 우리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
- 국민 안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개정안이다.
- 안경사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 근용안경이 온라인 판매되면 안경원의 매출은 감소할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콘택트도 조만간 온라인 판매될 것이다.
- 선글라스, 안경테 빼앗기고 이제는 돋보기까지 빼앗아가는 악법이다.
- 돋보기, 수경 빼 가면 이제 안경원은 안경렌즈와 콘택트만 남는군요.
- 안경 조제료 없이 돋보기 뺏어가는 것은 안경사 죽으라는 것.
- 안경사제도 필요 없으니 면허증 모두 반납하자.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2개 안경광학과 전부 문 닫자.
- 안광과 학생과 안경사의 일자리를 없애는 개정안이다.

◀3면에 이어서

돋보기 온라인 허용은 첫 단추부터 잘못

돋보기 온라인 판매 연구용역 의뢰할 때 안경사 제외… 연구 실효성 의문



지난 25일 복지부가 +3.00디옵터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렌즈 도수가 들어간 의료기기인 안경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산품화 시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돋보기안경의 온라인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안경과 관련이 없는 인사에게 의뢰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돋보기의 온라인 판매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연말에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안과교수팀과 안경광학과 교수 1인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10여 개월 만에 보고된 해당 결과물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 판매 금지가 타당하고, 근용안경은 양안 동일한 도수에 한해 굴절률 +3.00D 이내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결국 안경사들은 '돋보기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연구물은 안경과 직접 관련 있는 안경사는 빼놓은 채 의뢰한 것이어서 연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업계 관련인의 반박문

'이 법을 시행하면 국민들 눈 건강 해칩니다'

경기도 용인의 콘택트렌즈 제조•유통업체인 N社의 K상무이사가 지난 26일 복지부의 전자공청회에 안경업계 관계자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그의 반대 의견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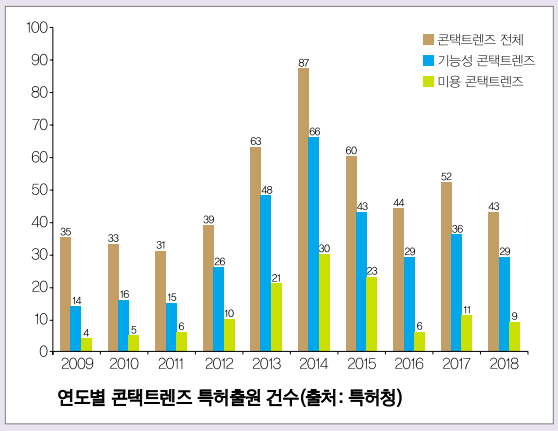
"저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번 입법예고에 확실한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제조사와 유통사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양심선언을 합니다. 절대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의 자녀,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며 더 악화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사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며 더 편안한 눈 건강을 위해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시간 공부해 합격한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의 입장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충분히 내용을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보기에 이 입법 내용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모르겠더군요. + 3.00 디옵터는 무엇인지 그 이하는 어디까지의 도수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 표현할 텐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인터넷을 통해 돋보기를 구매한다면 다시 안경원으로 가셔서 검안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일을 하실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분명한 건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눈 다 망가뜨려놓고 고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의 전자공청회란에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이 올린 반대의견.

'콘택트렌즈 특허출원 증가' 추세

2014년부터 5년간 203건 출원… 미용렌즈 출원수 전체 39% 차지



연도별 콘택트렌즈 특허출원 건수(출처: 특허청)

최근 콘택트렌즈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기능성 콘택트렌즈 특허출원은 총 203건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출원 건수인 119건에 비하여 70% 이상 증가했다. 같은 5년간 전체 콘택트렌즈 출원이 42% 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번 출원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눈을 아름답게 꾸미는 미용렌즈가 39%(125건), 도수•초점 등이 변화하면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가변렌즈가 30%(97건), 질병을 진단하거나 약물방출로 치료하는 진단•치료렌즈가 23%(75건), 안구건조를 방지하는 습윤성렌즈가 18%(58건), 자외선•청광 등을 차단하는 눈보호렌즈가 10%(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79건이 출원된 미용렌즈는 그 이전 5년간 출원 건수인 46건에 비해 70% 증가했다. 이는 홍채의 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컬러렌즈, 눈의 검은자위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서클렌즈 등 외모와 자기표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수요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검출하여 혈당치를 알려주는 진단렌즈, 안질환 치료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치료렌즈, 잠을 자는 동안 착용하면 각막을 눌러 교정해주는 각막교정렌즈, 작은 구멍을 통해서만 보도록 하여 눈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핀홀렌즈 등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콘택트렌즈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어 향후 관련시장의 선점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외국기업이 72%(232건), 국내기업 13%(43건), 개인 10%(33건), 대학 및 연구기관이 4%(14건)을 출원했고 가장 많이 출원한 것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社가 전체의 46%(149건)를 차지했다.

특허청의 유현덕 사무기기심사과장은 "현대인은 외모뿐 아니라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콘택트렌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1544-8080

한국 안경무역 약간 회복세

2월까지 동기대비 수출 2.6% 상승… 환율하락 등 향후 전망은 불투명



	수출	수입
2012	539,728,000	524,549,000
2013	501,457,000(▼7.1%)	533,001,000(▲1.6%)
2014	468,587,000(▼6.6%)	553,762,000(▲3.8%)
2015	451,024,000(▼3.7%)	589,124,000(▲6%)
2016	455,768,000(▲1%)	585,561,000(▼0.6%)
2017	513,478,000(▲11.2%)	518,994,000(▼11.4%)
2018	527,356,000(▲2.6%)	709,373,000(▲26.8%)
~2018. 2	78,834,000	131,277,000
~2019. 2	80,921,000(▲2.6%)	125,349,000(▼4.5%)

▲ 2012~19년 한국의 안경관련 무역수지(단위: 달러, 출처: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한국의 안경관련 무역이 예년에 비해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19년 2월 안광학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국내의 올해 안경관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한 약 8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4.5% 감소해 2월까지 한국의 안경관련 무역수지는 약 4천 4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무역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이는 전달까지 수출 3.7% 감소, 수입 2.8% 증가와 같은 추세를 역전시킨 것으로 국내 안경무역의 상승세를 예견케 하고 있다.

각 부문 별 무역은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 수출은 동기대비 평균 5.5% 감소한 반면, 콘택트렌즈와 광학기기의 수출은 각각 15.7%와 11.8% 상승하며 수출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관련해 경산의 한 콘택트렌즈 생산업체 관계자는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시아권과 러시아 등 신규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 회복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1160.5원을 기록하며 지난 27개월 동안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출업체에 더욱 큰 가격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줬다. 하지만 현재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유로존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유로화의 약세와 올들어 원화와의 상관성이 높아진 호주 달러의 약세 심화, 국내 1분기 GDP 부진에 따른 우려와 한은의 금리동결 등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환율은 다시 하락해 올해 연말에는 1,075원 수준에 머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광학기기 업체 관계자는 "작년 3분기에 계약이 완료되고 해당 물량의 선적이 지난 1월에 이뤄져 그 실적이 2월치로 기록돼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라며 "올해는 지금까지 눈에 띄는 호황세가 없어 수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유해 광선을 한번에 해결 토탈 아이헬스케어 렌즈

RODENSTOCK

로덴스톡 IR Plus 렌즈

로덴스톡 **RX 전 라인업 런칭**





근적외선 차단

눈 주변 피부노화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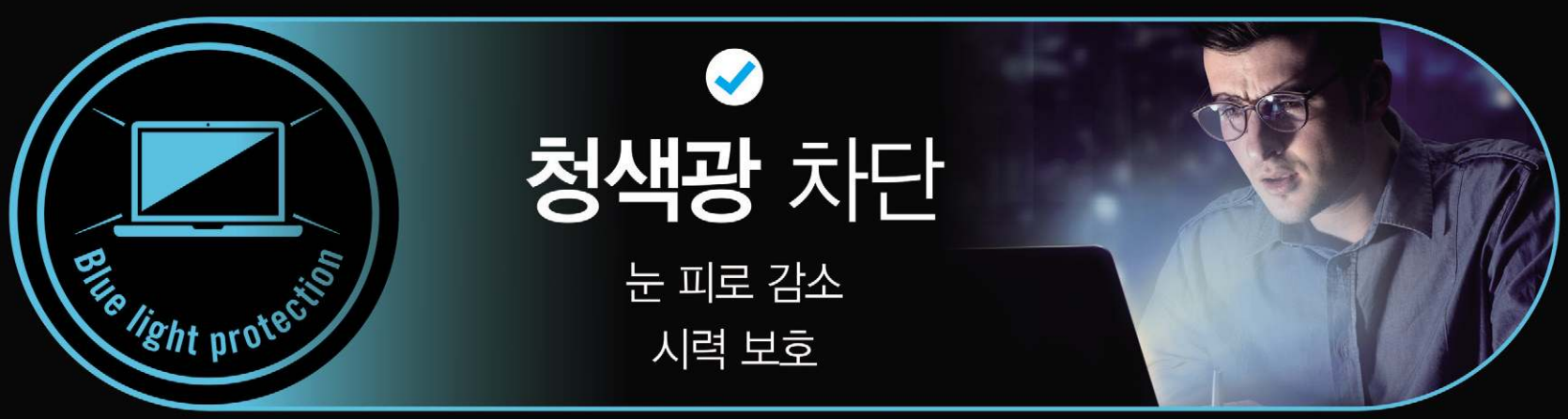
쿨링 효과



자외선 차단

망막 보호

안구건조 · 백내장 예방



청색광 차단

눈 피로 감소

시력 보호

서울영업소 1544-6002 | 대전영업소 070-8660-6345,6 | 광주영업소 062-714-2213 | 부산영업소 051-714-0006

‘하이엔드 안경렌즈의 세계로 오십시오’

디옵스서 국내에 첫선 보인 아사히 라이트… 니시카와 과장 “아사히는 명실상부한 토털 안경렌즈입니다”



▲ 일본의 아사히 라이트 해외영업부의 니시카와 진(西川仁) 과장

국내 안경시장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아사히 라이트(ASAHI LITE)社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에 참가해 국내 안경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디옵스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형 부스를 설치한 아사히 라이트에는 행사기간 내내 안경사들의 발길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본지는 현장에서 아사히 라이트 해외영업부의 니시카와 진 과장(사진)과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다.

– 현재 국내시장에 선보인 품목이 무엇인가.

니시카와 과장: 100% 메이드 인 재팬으로 프리폼 누진 IR코팅, DAS 싱글비전Rx, 1.74 DAS UV 3G, 1.67 DAS 3G 등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각 시리즈를 출시할 때마다 단계별로 관련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디옵스에서의 성과는 어떤가.

니시카와 과장: 우수한 제품과 함께 부스에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안경사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아사히의 기능성렌즈와 토털 안경렌즈 브랜드를 국내외 안경업계 관계자에게 각인시킨 것이 큰 성과다.

– 아사히 라이트의 장점은 품질력인가.

니시카와 과장: 맞다. 아사히는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안경렌즈로 정밀한 프리폼 설계로 고도수에서 발생하는 왜곡수차의 최소화와 극대화된 시야 및 선명도를 자랑한다. 고도수 고객이나 프리미엄 안경렌즈를 경험하려는 고객에게 추천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 특약 안경원은 어떻게 모집하나.

니시카와 과장: 각 지역별로 모집 중에 있다. 특히 최고 전문가의 안경사께서 최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의 안경원만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 010-9662-6898

‘스마트 루페는 돋보기가 아닌 만능 확대경입니다’





▲ 일본에서 방영 중인 스마트 루페(현지 제품명: 하즈키 루페(ハズキルーペ)의 공중파 CF.

옵티넷, 일본 시장서 선풍적 인기 스마트 루페 유통 본격 개시

현재 일본시장에서 누적판매 300만 장을 돌파한 화제의 안경 Smart Loupe가 국내시장에 정식으로 런칭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경 타입의 확대경인 스마트 루페는 본인 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안경 위에 걸쳐서 클립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마트 루페의 국내 유통사인 옵티넷(대표 허준석)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선 공중파 CF까지 방영될 정도로 스마트 루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하드 코팅된 렌즈는 자외선을 99% , 청색광은 20% 가량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4월말부터 국내 유통을 개시하는 루페 판매 안경원에는 미니 배너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53)353-5692

대안협, 논산훈련소서 ‘사랑의 안경봉사’





중앙회 및 충남안경사회 임원 참여 훈련병과 기간병 등에 검안 등 제공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중앙회 임원 등이 지난 21일 육군 논산훈련소를 찾아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안경봉사를 전개했다. 훈련소의 연무관에서 중앙회 김성진 복지부회장과 충남안경사회 장광천 회장 등 봉사단은 400여 명의 훈련병과 기간병들에게 꼼꼼한 검안과 함께 안경피팅을 제공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달 진행된 대안협과 논산훈련소가 체결한 시력보호 및 눈 건강을 위한 안경 피팅 및 A/S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봉사로 이를 통해 훈련병들의 효율성 높은 훈련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중앙회 이양일 교육이사, 정영록 복지이사, 전정현 홍보이사와 충남안경사회 최은규 복지부회장 등 총 16명의 임원이 참가했다.

문의 02)756-1001

다비치사관생도 11기 졸업식 성료

안경계 미래 인재 13기 수료식 동시 진행… 김인규 대표는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이 지난 18일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이 개최된 대구 엑스코 1층 원형무대에서 다비치안경사관생도 11기 졸업식 및 1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안경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업계 인재들의 본격적인 비상을 축하하는 자리로, 사관들은 합창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쳐보였고, 안경사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아침인사와 구호 제창도 거행됐다.

안경계 선후배가 모여 미래에 대한 조언과 덕담을 건네는 훈훈함 속에 졸업식이 마무리된 이날 행사에는 특히 다비치안경체인의 김인규 대표가 산학협력에 대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해 축하를 받았다.

문의 02)752-6177

‘두 마리 토끼’ 잡은 피팅몬스터

(홍보·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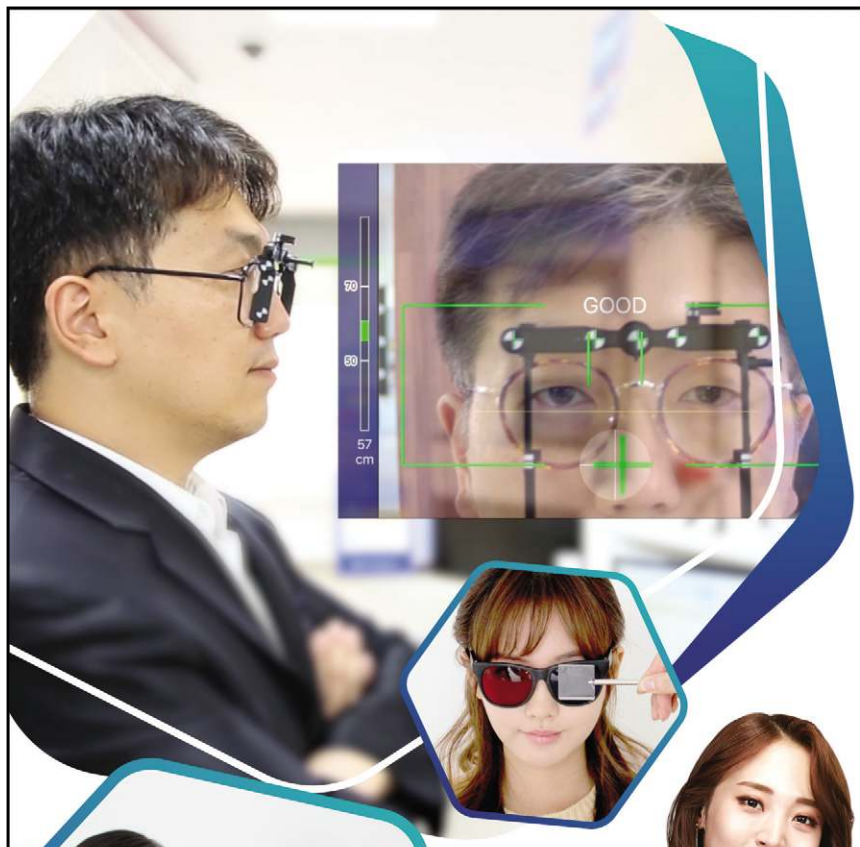
인터라인, 디옵스 참가로 큰 성과… 가상 피팅 솔루션 확대 기대



인터라인(대표자 김재윤)이 최근 폐막한 제18회 디옵스에서 가상 안경피팅 솔루션과 이 솔루션 기반의 오픈마켓형 쇼핑 플랫폼인 ‘피팅몬스터’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관람객인 안경사를 대상으로 가상 안경피팅을 체험하고 관련 경품행사까지 진행해 큰 주목을 끌었다.

인터라인의 관계자는 “디옵스를 통해 많은 바이어들과 상담해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약속했다”며 “자사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피팅몬스터의 가상 피팅 솔루션에 대한 공급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문의 070-7797-3070







이제, 전문성이 답이다!

가격 저가 경쟁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철저한 고객 신뢰의 시스템은 오직 다비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비치안경 전속모델
MAMAMOO

왜 다비치안경이어야 할까?

1. 글로벌 PB 제품 최다 보유 및 다양한 PB상품 구축 (매출 극대화)
2. 창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3.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과 최고의 전략정책
4. 온.오프라인 광고 진행 (2019년 마마무 전속 모델 계약)
5. 온라인 고객을 매장으로 연결해주는 차세대 시스템 – 다비치마켓
6.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본사 지원 (단체 제휴, 월단위 프로모션 진행)

20년간 지켜온 1등 브랜드의 자부심!

다비치안경 오픈 예정 지역

해당지역 안경사님께 오픈 우선권을 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 고덕역 / 상일동 / 둔촌동역 / 강동구청역
강남구 : 압구정 / 강남구청역 / 강남역 / 수서역 / 논현동
강서구 : 가양역 / 화곡역 / 까치산역 / 방화동 **금천구** : 가산디지털
관악구 : 서울대입구역 / 낙성대역 / 난곡사거리
광진구 : 건대입구역 / 자양사거리 / 군자역 / 아차산
구로구 : 구로역 / 대림역 / 개봉동 / 오류동 / 신도림 /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 수락산역 / 상계역 / 마들역 / 중계학원가 / 공릉역
동대문구 : 회기역 / 청량리역 / 전농동사거리
동작구 : 신대방동 / 상도 / 흑석역 / 남성역 / 노량진 / 장승배기
마포구 : 공덕역 / 광흥장 / 신촌역
합정역 / 망원동 / 디지털미디어시티
서대문구 : 홍제역 / 가좌동 **성동구** : 왕십리역 / 금호동 / 성수동
서초구 : 고속터미널 / 반포동 / 교대 / 남부터미널 / 양재
성북구 : 석계역 / 석관동 / 종암동 / 성신여대입구 / 한성대입구 / 안암
송파구 : 방이동 / 거여역 / 개롱역
영등포구 : 당산역 / 영등포구청 / 문래 / 대림동
은평구 : 은평뉴타운 **종로구** : 종각 / 종로3가 / 창신동 / 경복궁역
중구 : 신당역 / 약수
중랑구 : 신내동 / 사가정역 / 동부시장

인천 송도신도시 / 동춘동 / 신현동 / 석남동 서구청 / 서창지구 / 영종도 / 제물포

대전 월평동 / 도마동 / 노은역

충남 금산 / 배방

광주 금호지구 / 상무지구 진월동 / 봉선동 / 일곡지구

전남 광양 / 여수 여천동 목포 남악신도시

제주 아라동

경기

광명 : 광명사거리 / 철산역·소하동
부천 : 원종동 / 소사본동 / 송내역
성남 : 모란 / 서현역 / 미금역 / 정자역 / 오리역
수원 : 정자동 **시흥** : 은계지구 / 장현지구
안산 : 선부동 / 고잔동 **의정부** : 금오동 / 화룡역
안양 : 안양역 / 평촌 / 범계 / 인덕원 / 학원가
용인 : 성복동 / 상현동 / 보정동 / 구성마북지구
기흥구청 / 동백지구 / 역북지구 / 처인구중앙로
파주 : 금촌동 / 금릉역 / 운정지구 / 문산읍
하남 : 풍산 / 미사지구
고양 : 일산동 / 주엽역 / 마두역 / 탄현 / 풍동지구 / 삼송지구
김포 : 사우동 / 풍무지구 **과천** : 과천시청역세권
남양주 : 별내신도시 / 도농역 / 다산신도시 / 갈매지구
동두천 : 지행역상업지 **양주** : 회천지구 / 옥정지구
양평 : 시장~터미널 **의왕** : 의왕역 / 경수대로변
화성 : 봉담지구 **안성** : 공도

강원 원주 / 홍천 / 태백

충북 충주 / 청주 / 옥천 / 영동

경북 구미 옥계동 / 영주 / 상주 / 문경

대구 칠곡삼지구 / 지산동 / 다사읍 동호지구 / 화원삼거리

울산 화봉동

경남 진주 평거동 창원 대방동 / 고성

부산 서면 / 부전동 / 연산동 명지국제신도시

가맹상담문의 **010-4087-0250**
이메일 문의 가능
jinkjin10@davich.com

다비치안경체인
Davich Optical Chain

콘택트제조협 안성호 새 회장… 4가지 쇄신 강조

(협동조합 설립 • 원부자재 공동구입 • 신소재 개발 • 공동브랜드 출시)

협동조합 설립으로 현안 개선 약속한 안성호 신임회장 "미래 시장 위해 콘택트렌즈의 고부가가치 추진할 터"



▲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의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안성호 회장(㈜엔보이비젼 대표).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택트렌즈는 세계 어느 곳이나 그 품질을 인정한다. 세계 각국에서 높은 수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우수하고 다양한 제품군과 품질력 때문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가격경쟁에 휘말려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만 제조 역량은 세계 최정상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40여 콘택트렌즈 제조업체가 설립되어 있다. 부득이 생산업체가 많음으로써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콘택트 제조업체들은 업계의 건전 발전과 미래화 추진, 또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를 설립해 그동안 국내 제조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본지는 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제조협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제6대 회장에 취임한 안성호 신임회장(㈜엔보이비젼 대표)로부터 협회의 향후 목표와 발전 방향을 들었다.

–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신임회장으로 회원에게 인사 말씀 주시죠.

안성호 회장: 먼저 전임 강응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협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과 봉사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전임회장이 다져놓은 업적을 발판 삼아 제조협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재임기간에 추진할 주요사업이 많은가요.

안성호 회장: (웃음).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 중에 추진할 대표적인 주요사업은 4가지로 첫째, 콘택트렌즈제조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의료기기 수출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콘택트렌즈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둘째 회원사들의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부자재의 공동구입도 관철해야 할 주요 사업입니다. 또 세 번째는 회원사 전체가 공동 참여해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넷째 공동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해 국내외 시장의 판로를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가 우리 제조협의 주요 사업으로 회원사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콘택트렌즈 업계도 여느 산업처럼 어려움이 있죠.

안성호 회장: 지금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사들은 너나없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수출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국내 시장은 안경 프랜차이즈가 증가하면서 공급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와 간접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내수나 수출 모두 과당경쟁이 문제군요.

안성호 회장: 경쟁의 끝은 파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가격경쟁, 저가렌즈 유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 개선책은 없나요.

안성호 회장: 우선 미래시장을 겨냥한 과감한 R&D 투자와 다양한 소재 개발이 그 대응책일 것입니다. 콘택트렌즈의 고부가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당뇨병, 안압 체크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기능성 콘택트렌즈 개발도 주요한 개선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미용 컬러렌즈도 특수한 기능의 콘택트렌즈 생산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당경쟁보다는 건전한 유통구조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고, 이를 앞서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콘택트렌즈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안성호 회장 '대량생산체재' 부쩍 강조

– 원부자재를 값싸게 구매하려면 조합이 필요하죠. 조합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성호 회장: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원/부자재의 공동 구매부터 공동 브랜드의 개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차세대 소재개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덤핑판매 등 심화된 과당경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합이 설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서 인정받은 단체로서 각종 규제나 민원제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필요합니다.

– 협동조합은 언제 설립되나요.

안성호 회장: 현재 생산자 조합원 15개사가 참여해 곧 설립될 예정입니다. 발기인대회는 오는 5월 1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수가 많을수록 추진사업이 수월할 텐데요.

안성호 회장: 올해까지 30여 회원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제조협 홈페이지 활동을 통한 정보공유, 일본 • 중국 등 아시아권의 콘택트제조 관련 협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정기교류 등을 실시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콘택트렌즈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 국내 업체가 외국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안성호 회장: 국내 업체가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는 국내 업체든 외국 업체든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단순 공산품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행스럽게 국내 업체도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계 업체의 엄청난 마케팅 비용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조협 차원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공동마케팅을 벌여야 합니다. 앞으로 품질혁신과 제조비용의 절감으로 안경원에 고마진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계획입니다.

– 안경테 업체는 AR안경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한창입니다.

안성호 회장: 콘택트렌즈도 기능렌즈의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토릭 미용 컬러렌즈, 건조안 개선기능의 렌즈, 진단기능이 첨가된 스마트렌즈 등이 개발됐는데, 국내기업에서도 안압 측정이 가능한 렌즈와 각종 약품이 방출되는 콘택트렌즈, 당뇨병 측정이 가능한 콘택트렌즈 등이 곧 출시됩니다. 이제는 규모의 경쟁보다 인체에 적합한 생체적합재료와 여러 기능성렌즈의 개발에 힘쓰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성호 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안성호 회장은 전국의 안경사와 회원사들에게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콘택트렌즈의 공급과잉과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덤핑판매로 안경사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제조사들은 앞으로 과감한 R&D 투자와 설비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기능성 콘택트렌즈의 출시로 안경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콘택트렌즈 업계가 새로운 수장을 맞아 힘찬 전진이 기대되고 있다. /김태용 기자

Anywhere! Anytime!

어디서든 안경을
미리 **써보고 구매**하세요!

AR(증강현실) 기술기반 **안경 가상피팅 쇼핑플랫폼앱**

구글스토어에서 피팅몬스터를 검색해 보세요~

입점문의

070-7797-3070

fittingmonste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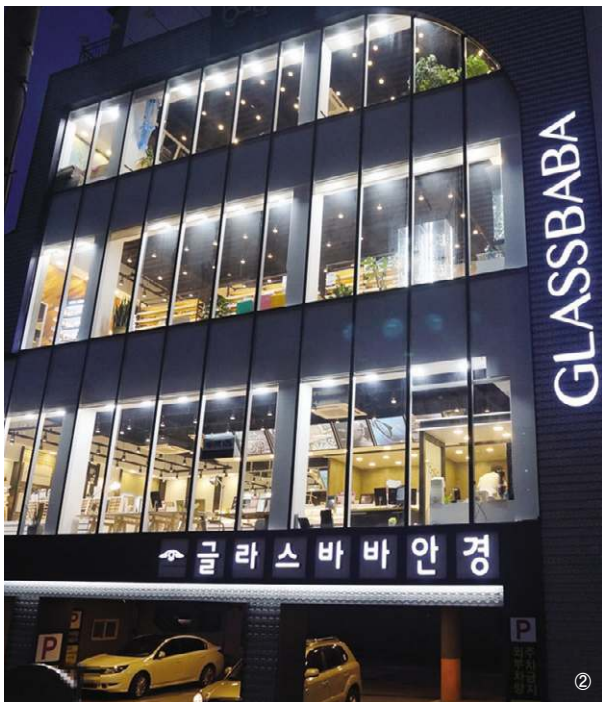
안드로이드
Google Play

가맹 즉시 명품 안경원 된다!… 글라스바바

지역 곳곳서 1등 안경원으로 자리매김… 빼어난 PB로 가맹점의 수익성 완벽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 글라스바바는 가맹점마다 지역마다 최상의 안경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①④안산 중앙점, ②수원 정자점, ③강릉점, ⑤의정부역점, ⑥원주 혁신신도시점, ⑦오산 원동사거리점



⑦

글라스바바안경
Optical Chain Store

㈜글라스바바안경체인(대표 노영구)은 2010년 9월 설립 이래 '본부와 가맹점이 동반성장하는 안경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 최고의 PB공급과 검안장비 설치, 본사 부설 교육원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검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최고의 안경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은 글라스바바만의 눈에 띄는 특장점이다.

문의 031)612-9282



▶가맹점에 최상 수익구조 제공

안경테와 안경렌즈(일반/ 보급형/ 기능성/ 누진) 등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이 월등한 PB브랜드를 기획 • 생산하고 있는 글라스바바는 공급 면에서 최적의 상품 공급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가맹점의 수익구조에 우선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제공하며 가맹점에 최상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데이터 분석 → 효율적 경영관리

체인본부는 매월 가맹점에 경영과 직원 업무성과, 고객 유형, 판매 상품분석 등 가맹점에 특화된 경영 상황을 빅 데이터로 분석한 컨설팅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가맹점은 매출에 가장 이상적인 경영 설계를 이루고 있다.

▶전문화된 비젼케어 제공 → 검안•제품 표준화 완성



●매년 2개월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배출된 공채 안경사를 각 가맹점으로 배치하고 있는 글라스바바는 이후에도 안경사 인재육성 및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라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글라스바바 본부는 모든 안경사를 대상으로 부설 교육원인 FVC에서 업무 분야별, 개인 수준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지속 개발



●해마다 시장상황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후 일관성 있게 추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향상에 만족하지 않고 가맹점들이 근본적인 수익향상을 이루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가맹점별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가맹점에 최적화된 맞춤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본부가 분야별로 협력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각 가맹점에 양질의 마케팅 과 영업을 지원하여 가맹점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뇌과학

The 10th anniversary

TOKAI

RESONAS X-W



양면누진 렌즈의 새로운 표준

Progressive is Neuroscience

LENS

최고 기술 담은 로덴스톡 2종 런칭

獨 공인시험기관 TUV Rheinland서 인증 받은 드라이브 'Road2' EyeLT 기술 적용한 난시에 최적인 'Rodenstock MyLife2' 출시



㈜소모비전(대표 신승종)에서 Rodenstock의 신제품 2종과 전제품 IR코팅 옵션을 오는 5월 중에 선보인다.

로덴스톡의 신제품 드라이빙 렌즈인 'Rodenstock Road2'는 독일 유일의 자동차 관련 공인시험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의 인증을 받은 렌즈이다. 로덴스톡만의 눈부심 제어 필터가 적용돼 야간에 발생하는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명암 구분이 선명해 보다 쉽게 사물을 인식한다. 이외에 로드2는 일반적인 안경렌즈와 유사한 투명도로 운전과 함께 일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어 두 번째 신제품인 'Rodenstock MyLife2'는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올라운드, 액티브, 엑스퍼트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선택하는 누진다초점렌즈로, 로덴스톡만의 특허기술인 EyeLT 기술이 적용돼 근용부와 원용부를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특히 난시가 높은 고객에게 보다 넓고 편안한 중/근용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소모비젼은 로덴스톡의 단초점 여벌렌즈인 Cosmolit에만 적용했던 자외선, 청색광,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IR코팅 옵션을 로덴스톡의 모든 Rx 라인업에 추가한다.

로덴스톡의 한 관계자는 "독일 주문만 가능했던 로드2와 마이라이프2가 이제 국내에서도 주문하게 되었다"며 "140년의 전통과 역사로 탄생한 드라이브 렌즈와 개인 시야맞춤 렌즈 2종의 신상은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기능 렌즈"라고 전했다.

문의 1544-6002

LENS

실무교육 HLE 베이직 과정 성료

호야렌즈, 대전과 광주서 정기교육… 이론+실무 교육에 안경사 만족



▲ 대전보건대 안경광학과 강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 호야렌즈 HLE(Hoya Lens Expert) 4월 교육과정.

한국호야렌즈㈜(대표 이선배)의 HLE(Hoya Lens Expert) 정기교육 중 베이직 과정이 지난 10일 대전, 11일 광주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전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강의실과 광주 KDB생명빌딩 희망실에서 각각 진행되어 일선 안경사 81명이 참석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정기교육은 이론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대폭 추가했는데, 특히 현재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기능성 신제품 SYNC Ⅲ 세션에서는 기능성 렌즈 처방을 위한 검사법과 임상 케이스를 공유하는 실무 교육이 진행되어 주목을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안경사들은 '실무에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적합한 렌즈를 추천할 수 있는 멘트 등에서 도움됐다' 등 만족감을 드러냈고, 교육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앞으로 전개될 HLE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회사 교육팀의 관계자는 "5월에는 어드밴스 과정이 5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어드밴스 과정은 호야의 프리미엄 누진렌즈인 HOYALUX 이외에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실내용 렌즈의 설계적 개념 이해와 처방, 또 클레임 대응까지 사례 중심의 스킬 향상 교육과정을 흥미롭고 실무형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1588-5911

LENS

깐깐한 기능 – '펜탁스 드라이빙'

420~450nm의 유해광선 산란·반사… 드라이빙 렌즈 테스터기 무료 공급

100년의 역사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PENTAX에서 최근 선보인 펜탁스 드라이빙 렌즈가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펜탁스 드라이빙 렌즈는 420~450nm 영역대의 유해한 빛을 산란·반사시키는 렌즈로 이 기술은 렌즈 표면의 특수 기능성 코팅으로 눈에 들어가는 유해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빛을 산란하고 반사시켜 눈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또한 펜탁스는 이번 드라이빙 렌즈 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유해광선 차단 정도를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펜탁스 드라이빙 테스터기를 취급 안경원에 공급해 드라이빙 렌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수많은 운전용 렌즈가 있지만 그 중에는 일반 코팅과 큰 차이가 없는 이름만 드라이빙 렌즈인 제품도 없지 않다"며 "운전에 최적화된 누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펜탁스 드라이빙 렌즈는 특히 야간의 시력손실을 제어하기 위한 나이트 존(Night zone)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운전에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완벽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43)240-4000



OPTICAL INSTRUMENT

한국톱콘, 최신 검안기기 공개

좌/우안 자동측정 KR-1 검안기·각막색상지도 확인하는 자동굴절검안기 선보여

㈜한국톱콘(대표 이인구)이 지난 19일 폐막한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에서 다양한 주력 제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 한국톱콘이 선보인 자동굴절검안기 KR-800PA.

톱콘은 이번 디옵스에서 편리하고 빠른 작동으로 우안/좌안을 완전 자동측정하는 KR-1 전자동굴절검안기와 각막색상지도(2D/3D)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형 자동굴절검안기 KR-800PA 등을 선보였다.

특히 KR-1은 컨트롤레버를 사용할 필요 없이 모니터의 동공 중심을 1회 터치만으로 우안/좌안의 측정할 수 있고, 컬러 모니터 화면으로 정확한 측정은 물론 측정된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디옵스를 참관한 광주의 한 안경원 원장은 "디옵스에서 최첨단으로 변화된 톱콘의 광학기기를 직접 확인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톱콘 안경기기사업부의 범영기 본부장은 "자사에서는 5월까지 검안시스템 보수교육 패키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02)2055-0321

즐거운 **안경쇼핑** **JINY's** **국민안경** 브랜드



매출하락에 대한 대안이 없으세요?
수익이 없어 매각을 검토하시나요?
지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PB상품전략은 가맹점 수익과 가격경쟁력을 만듭니다.
그로인해 성장하는 JINY's 입니다.

원활한 공급
=
마케팅의 시작

→

고객 인지
=
마케팅의 꽃

→

가맹점 수익
=
마케팅의 열매

마케팅 잘하는 회사 JINY's 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세요.

JINY's

가맹상담 | 대표 김진희 : 010-8641-5093, 본부장 김기덕 : 010-4082-3684

CONTACT

'뉴바이오', 디옵스서 인기몰이

30년 기술 담은 플로라 모이스처 원데이 다양하게 출품

뉴바이오㈜(대표 김숙희)가 지난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 참가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에서 뉴바이오는 다양한 원데이와 한 달용 제품을 출품해 일선 안경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디옵스에서 첫 선을 보인 FLORA MOISTURE 1DAY는 디옵스를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렌즈는 인위적인 서클라인이 없는 자연스러운 골드톤의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가 눈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느낌을 주고, 품질도 촉촉함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회사의 고위 관계자는 "30년 넘은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로 최고의 콘택트렌즈를 생산하는 자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해외 참관 바이어들과 신제품 상담을 진행했다"며 "자사의 렌즈는 우수한 보습력과 높은 함수율, 산소투과율 등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촉촉함이 유지하고, 특히 각막 건조개선에 도움을 주는 생체적합적 소재(터폴리머, 뉴바이오 특허 보유)를 사용해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1522-4596



CONTACT

편리한 'JJI도서관' 개관

J&J, 온라인 도서관 개관… 콘택트와 양안시 등 다양한 자료 공람

㈜한국존슨앤드존스비젼(대표 이선영)의 아큐브 교육센터(JJI)가 최근 일선 안경사를 위해 온라인에서 'JJI도서관(https://ecp.acuvue.co.kr/view/jji/ejournal)'을 선보였다.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기술과 검사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JJI도서관은 일반 안경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콘택트렌즈 관련 전문자료와 아큐브의 콘택트렌즈 제품은 물론 난시, 노안, 양안시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JJI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천의 한 안경사는 "딱딱한 느낌의 텍스트가 아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적당한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확인하는 JJI도서관에 감사를 드린다"며 큰 만족을 드러냈다. JJI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JJI 도서관은 안경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격주로 업로드하고 있다"며 "안경사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JJI 도서관은 아큐브 홈페이지에서 안경사 ID로 로그인하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080-023-0202



▲ 아큐브 홈페이지 내의 JJI 도서관 페이지.

시력에 관계없이 사물을 크고 깨끗하게 보여준다! - '스마트 루페'

이제 '스마트 루페'와 함께 하세요!

하드코팅 렌즈는 자외선 90%, 청색광 20% 차단!



일본에서 누적판매 300만장을 기록한 'Smart Loupe'
공중파 CF까지 방영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는
'스마트 루페'는 안경 타입의 확대경입니다.

안경 위에 걸쳐 사용하여 편리합니다.



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FSL-01-1

원터치 기능! 자외선 차단 90%



FSL-01-5

국내 총판 **옵티넷** 010-4515-5680

FRANCHISE

지니스, 중국서 상표권 등록 완료

해외합작 파트너 모집하며 본격 행보…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 추진

지니스안경체인(대표 김진희)이 최근 중국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해외합작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지니스안경체인이 보유한 지적자산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유통시장 확대를 꾀하기 위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 것. 보다 안정적이고 비교우위를 가진 PB 공급을 통해 가맹점 수익율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지니스는 특히 제품 생산도 대구지역의 우수한 제품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에 있는 중국산 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群)을 구축해 가맹점의 경쟁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니스의 한 관계자는 "해외시장과 전략적 공유는 상호보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자사는 선진화된 전산시스템과 교육, 또 인재개발 서비스, 가맹점 컨설팅과 마케팅 현지화를 통해 중국시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 아직 체인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자사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010-8641-5093



▲ 지니스안경체인의 중국 상표권 등록 관련서류. 등록증 번호 제30883530호의 해당 상표는 제9류로 안경줄, 안경목걸이, 교정렌즈(광학), 단안경, 안경케이스,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지니스안경체인, 구미 인동점

CASE&CLEANER

똑똑한 '세정제·클리너' 나왔다!

씨엠에이글로벌, 디옵스서 친환경 렌즈세정제와 김서림 방지 클리너 런칭



㈜씨엠에이글로벌(대표 김영선)이 지난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에서 일선 안경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서 씨엠에이글로벌은 주력제품인 안경 클리너와 안경 케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는데, 특히 이번 디옵스에서 친환경 렌즈세정제 'Glasklar'와 안티포그 안경클리너 'C:Ya'를 국내에 처음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안경원에 세정액 주입기를 설치해 고객이 언제든지 리필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안경렌즈 세정액인 '글라스클라'는 리필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안경원 방문을 유도해 단골고객 확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안티포그 안경클리너 '씨:야'는 렌즈를 닦아주면 김서림이 방지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시 8~12시간 가량 효과가 지속되고, 200~300회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시기간 중 자사 부스를 찾으신 많은 안경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자사가 이번 디옵스를 계기로 재차 클리너와 케이스 분야의 리더로 각인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문의 053)984-9860

UNIVERSITY

디옵스서 '대추나무안경' 떴다

대구가톨릭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서 제작한 친환경 안경 인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단장 조극래)이 지난 제18회 대구국제광학전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경산 대추나무안경'을 선보였다.

디옵스를 방문한 안경사들로부터 인기를 모은 대추나무안경에 대해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조선시대 문헌에도 대추나무를 이용한 안경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추나무는 안경 소재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산은 전국 대추나무의 40% 이상이 재배되는 곳으로 사업단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한 대추나무안경은 올해 하반기에 시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디옵스에서 많은 업체들이 큰 관심을 모은 대추나무안경은 다비치 가맹점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가톨릭대의 안경광학과를 비롯해 패션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신소재화학공학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은 대학과 기업 간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 R&D, 취업이 연계된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협력해 명품 패션테크 융복합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한 사업단이다.

문의 053)850-2551

UNIVERSITY

양안시전문대학원 학술제 개최

디옵스서 3회 학술제 열고 '선진 옵토메트리의 실무 적용' 주제 논의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안광학양안시전문대학원(원장 김인규)이 지난 18일 대구국제안경전이 펼쳐진 대구 엑스코 323호실에서 학생과 안경업계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학술제를 개최했다. '한국안광학양안시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19년도 학술제에서는 '선진 옵토메트리의 실무 적용'이라는 주제로 안경과 콘택트렌즈 분야의 다양한 실무 내용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태국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안경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GLAZZIQ 社 Piriay Tantrativud 대표의 '동남아시아 안경업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특강이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학원의 김용길 교수는 "우리 대학원의 학술제는 교육기관의 단순한 학술제로 그치지 않고 안경업계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특히 양안시를 통한 안경사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업계의 미래 진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학술제 개최에 협조와 참석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053)850-2553





▲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 개막식.



▲ 제19회 대한민국안경디자인공모전의 시상식.



▲ 디옵스 어워즈의 시상식.

2019 디옵스, 한국안경의 진수 보였다!

전시회서 한국안경의 고도화육성산업 본격 시동… 국내외 31개국서 안경 관계자 11,457명 참가하며 성황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주최하고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원구)에서 주관한 제18회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유일의 안경산업 관련 전시회인 디옵스의 올해 행사에는 12개국, 210개사, 475부스가 참여했고, 참관객은 해외 31개국 1,172명의 바이어를 포함해 국내외 총 11,457명이 참가했다.

디옵스 주관사인 진흥원은 올해 디옵스에서 이뤄진 수출은 현장 상담액이 9,926만 달러로 전년대비 1.5% 상승했으나 계약 예상액은 4,82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수 거래는 바이어 참관시간 확대 등으로 상담액은 전년대비 1.3% 상승한 6,334천만원, 계약액은 2% 상승한 459천만원으로 집계했다. 디옵스 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 디옵스는 인도네시아 총선, 태국 송크란 축제, 필리핀과 EU 권역의 부활절 등 범국가적인 행사나 이슈로 일부 빅바이어와 단체 참관이 취소되는 악재가 겹쳐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8%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하지만 전년대비 바이어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전시회 마지막 날까지 곳곳에서 상담이 이어지는 등 안경산업 유일의 비즈니스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는 디옵스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안경산업의 거래 활성화 및 수출 확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 대구시는 디옵스가 안경 수출과 계약 활성화로 세계시장에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브랜드 지원 확대, 해외거점사업과 연계한 수출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53)350-7840



▲ 디옵스 행사장의 바이어.



▲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시장 투어.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부의장 •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원구 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현철 국장 •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

▶4개 안경사회 5천여 안경사 보수교육 참가

이번 디옵스에서는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안경사회의 법정보수교육이 전개됐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안경사 신상신고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안경사가 참석했다. 또한 각 안경사회는 보수교육 시간에 디옵스 행사장을 둘러보는 '상품정보 시간'을 마련해 안경사와 부스 참가 업체에 만족을 주었다.

▶세계 안경산업의 네트워킹, 글로벌 서밋포럼 개최

개막일인 17일에 개최된 서밋포럼에는 이태리,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방문한 각국의 안경협회장 및 대표를 비롯해 한국 안경업계의 리더가 모이는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이태리 미도(MIDO)의 아트 디렉터인 단테 카레티